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회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부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2월 14일(음력 11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556 호

배후 수사하라

중단협·‘...재가불자들의 모임’ PD수첩에 의혹제기
MBC 최대주주 소속 이사·PD 등 종교에 주목

11월 12일 미국 피츠버그대 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와의 연구 파트너십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하고, 22일 PD수첩이 방영되면서 불교계 안팎에서 “PD수첩과 그 배후에 대해 철저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우석 교수를 위한 한국재가불자들의 모임’(이하 재가모임)은 12월 6일 동산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이 벌인 일은 국가의 미래 산업을 파괴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국민의 권리를 유린한 반국가적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전면적인 수사를 주장했다.

재가모임이 이와 같이 PD수첩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바로 이번 파문이 PD수첩만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은 “수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에 특정 종교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가톨릭도 신부가 황 교수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일부 종교인들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파괴 행위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발안”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서울광역시도회 김진관 회장이 “이번 대국민 기만극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자행된 기획 취재가 아

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MBC 최대주주인 방송 문화진흥회 이사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과 황우석 교수팀 간의 줄기세포 검증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천주교 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김형태 변호사는 12월 6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PD수첩 취재내용을 공개하고, 줄기세포 재검증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네티즌들은 PD수첩 최승호 CP가 기독교인이라는 점과 한학수 PD가 가톨릭 매스컴상을 받은 것 등을 들어 취재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계종 등 27개 불교종단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12월 9일 성명서를

를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배아복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시대흐름을 선도하고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전 국민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단협의회의 또 “이번 PD수첩으로 인한 논란은 국내 과학계 위상 추락과 신뢰 상실 등 적잖은 후유증을 물고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윤리적인 문제도 문화적 격차나 세계관, 윤리적 전통과 관습의 측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 인류가 수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유철주 기자



과외와 불면으로 인한 탈진과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는 황우석 교수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사진 위·제공=과학기술부와 불교계 14개 단체로 구성된 ‘황우석 교수수를 위한 한국재가불자들의 모임’의 6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유철주 기자)

“자신이 환자라면 비판하겠나?”

지관 스님 황교수 비판론자에 ‘일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관 스님은 12월 3일 역사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에서 “(황교수 비판론자들은) 자신이 난치병 환자라면 황우석 교수에 대해 쉽게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이어 “‘범법경’에서는 배고픔과 헐벗음, 병 등의 3가지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병인데,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황교수의 연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직지’ 담은 우표 나와

우정사업본부 85만장 발행

관소리 소재 우표 2종을 발행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아동보호보육사찰 경찰서에 신고해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 7일 전국 교구본사와 직할 사무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의점’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아동 보호 사찰은 반드시 경찰서에 아동 보호 사실을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강진 기자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 170여명 동인거 수행현장 19면

친일로 얻은 재산 국고 환수

특별법 통과... 내원암 재판 12월 30일 선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민주노동당 노화찬 의원 등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8일 17시 20분 한나라당의 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55명 전원외 찬성으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원암 소송과 같은 재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작위를 받거나, 을사늑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한편, 친일파 이해당 후손 21명이

내원암 일대 토지를 내놓으라며 2004년 12월 24일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선고가 12월 30일 10시 내리진다.

내원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12부 강민구 부장판사는 12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해운 스님은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재판이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하는 마지막 소송이 될 것”이라며 “내원암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5면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마감임박

원고지 30매 ... 12월 17일 마감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수기 공모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원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우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톤) 열쇠를 드립니다.

하버드대와 불교생태학 세미나

동국대 BK21 연구단 동국대 홍기삼 총장도 직접 참석해 기조 강연했다.

동국대학교 BK21불교문화사상 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이하 BK21연구단)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에서 불교생태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측에서 조용길·박경준·김종욱 교수 등 8명이, 하버드대 측에서는 로버트 지멜로(Robert Gimello) 교수 등 8명이 발표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외방 안마당

1부 : 범능 스님(노래), 정용주(통기타)
 다음거사(바라춤)
 2부 : 첨가소갈 발표, 기념품 추첨

일시 : 2005년 12월 14일(수) 오후 7시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대강당
 주최 : 광주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신문사

‘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노는 맘이 불안하고 뒤숭숭해
 그럴때는 마음을 비워야지

그림·조태호

각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들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031)792-6288, 794-4055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찬덕연등 / e-mail: chanduk21@hanmail.net

경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사찰명령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